

# 2020 공연시장 이슈리포트

2020/09

● 코로나19와 공연예술분야 현황 및 전망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 목 차

I 공연시장 이슈리포트 취지 및 개요 .....	01
II 코로나19와 공연예술분야 현황 .....	02
1. 전체 공연시장 현황 .....	02
2. 공연 개막 및 상연 현황 .....	03
3. 공연 장르별 현황 .....	04
4. 공연 지역별 현황 .....	06
5. 공연 수요(예매취소) 현황 .....	06
6. 공연 매출액 현황 .....	08
7. 공연 매출액 피해 추계 .....	10
8. 공연장 운영 현황 .....	12
9. 공연 예술인(근로자)의 피해 현황 .....	15
10. 공연예술과 코로나19관련 언론매체의 보도 현황 .....	19
11. 정책과 지원사업 현황 .....	20
III 코로나19, 공연예술분야 이슈와 전망 .....	23
1.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 공연예술의 변화 .....	23
2. 언택트untact에서 온택트ontact로 .....	24
3. 공연 영상화에 따른 예술현장의 혼란 .....	26
4. 온택트ontact, 대안으로서의 공연 영상화를 위한 과제 .....	27
5. 정책과 지원사업 .....	31

## Ⅰ 공연시장 이슈리포트 취지 및 개요

- 올해 초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대는 우리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와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은 국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창작자와 향유자간의 접점이 필요한 문화예술분야에 더욱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공연장이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대면하는 공연예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리포트는 「공연법 제4조, 제4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sup>1)</sup>의 데이터<sup>2)</sup>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또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이하 KOPIS) 데이터와 함께 집단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KOPIS 수치가 보여주는 내용을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KOPIS 자료와 FGI 등을 통해 코로나19 공연예술계의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까지의 전망을 통해 나침의 이해를 제공하길 희망함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은 분산된 공연 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집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 [kopis.or.kr](http://kop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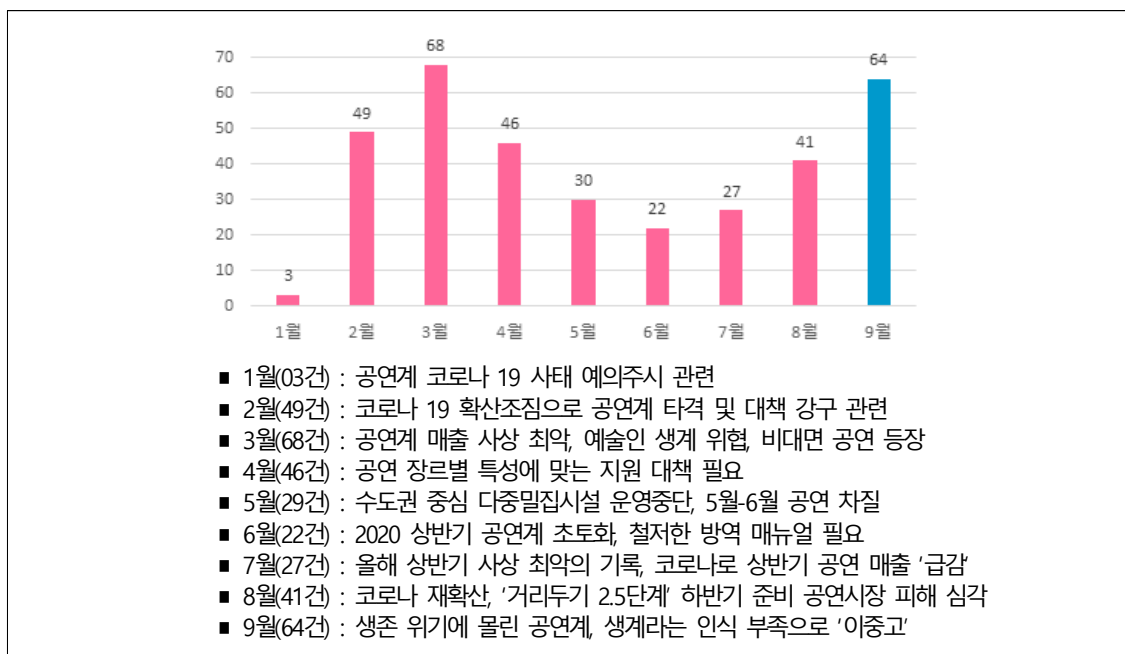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 전송 의무화 시점이 2019년 6월 25일 이후부터로, 2019년 7월부터의 데이터 신뢰도가 높음. 또한 2020년 3월 연계 시에도 공연법 개정 이후 모든 데이터를 일괄 소급하여 수집하고 있어 통계검색 기준일에 따라서 통계수치가 일부 변경되고 있음

### 1. 전체 공연시장 현황

#### 코로나19,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 생태계

- 2020.1.20 첫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up>3)</sup>(이후 코로나19)은 2.18 대구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첫 발생 74일(4.3)만에 누적 확진자 1만 명이 돌파한 후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 8.15 광화문 종교집회를 통해 2차 대규모 확산이 진행.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와 2.5단계로 격상되었으며, 9.1에는 누적 확진자 2만 명이 넘어가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sup>4)</sup>됨
- 코로나19의 높은 전파율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예술 현장관람 자체가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공연예술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직면. 공연시장의 지속적인 위축은 공연예술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언론보도 현황]



자료: 코로나19 이후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사 스크랩

3) COVID-19: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4) 질병관리청(cdc.go.kr) 보도자료

- 관련하여 참고로 올 상반기에 조사된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sup>5)</sup>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또는 운영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공연예술 기관이 82.4%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공연예술계가 코로나19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조사됨

## 2. 공연 개막 및 상연 현황

###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공연 개막 및 상연

- 공연예술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KOPIS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우선 공연 공급의 관점에서 KOPIS의 월별 공연 개막 및 상연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공연 개막 및 상연은 전년 동일기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9~2020년 공연 개막 및 상연 현황]

연도 기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공연건수 증감(율)
	공연건수 (건)	개막편수 (편)	상연횟수 (회)	공연건수 (건)	개막편수 (편)	상연횟수 (회)	
1월	351	244	3,463	692	478	7,594	
2월	337	225	2,949	540	347	5,106	
3월	501	407	3,298	178	62	2,187	
4월	498	404	3,381	176	92	2,182	
5월	628	497	4,053	343	230	3,780	
6월	884	689	5,120	456	315	3,590	
7월	1,148	930	8,736	587	447	4,495	△561(-48.9%)
8월	1,242	957	10,546	802	620	5,002	△440(-35.4%)
9월	1,276	990	7,624				
10월	1,511	1,280	9,270				
11월	1,578	1,314	9,177				
12월	1,569	1,281	11,700				
합계	11,523	9,218	79,317	3,774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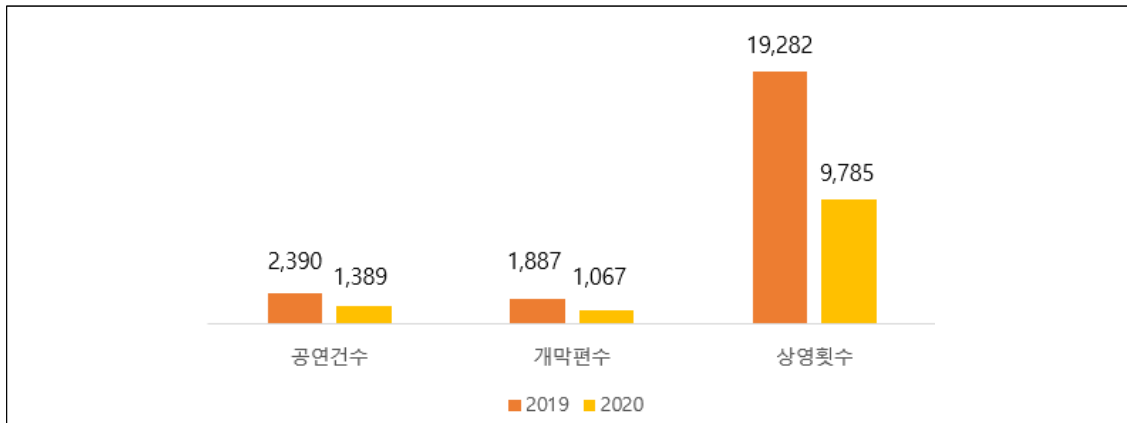
- KOPIS 데이터 전송 의무화 시점이 2019년 6월<sup>6)</sup>이었음을 고려하여 2019.7~8과 2020.7~8만을 비교. 2019.7~8의 공연 건수가 총 2,390건임에 반면 2020.7~8의 공연 건수는 총 1,389건으로 동일기간 기준 1,001건의 공연이 감소되었음이 나타남

5)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발간자료, 2020.5

6)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 전송 의무화(법제화) 이전 통계는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국내 공연시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동일기간 개막편수는 1,887편에서 1,067건(56.5%)으로, 상연 횟수는 19,282회에서 9,497회(49.3%)로 축소됨. 코로나19 이외에 공연개막 및 상연에 영향을 미친 변수가 없다고 전제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개막과 상연 등 공연 공급이 전년 대비 절반(41.9%)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2019.7~8 및 2020.7~8 공연개막 및 상연 현황 비교]



-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점에서 보자면, 2020.1.20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2.23에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Red)로 상향함<sup>7)</sup>에 따라 코로나19는 2월 말과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됨. KOPIS 공연시장 월별통계에 따르면 2월 540건의 공연이 3월 178건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 8월 넷째 주 주말인 22~23일은 공연계 역사상 최악의 ‘셋다운 데이’로 기록됨.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인해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한 공연 관계자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대형 공연과 대학로 공연이 연쇄적으로 취소됨

### 3. 공연 장르별 현황

#### 대중성이 낮은 장르의 공연이 더 큰 피해

- 코로나19의 영향을 공연 장르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동일 시점에서 비교하기 위해 7~8월로 비교 시점을 통일한 후 장르별 상연 횟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상연 횟수는 전체적으로 19,282회에서 9,485회로 절반 수준 가까이 축소됨을 보임

7)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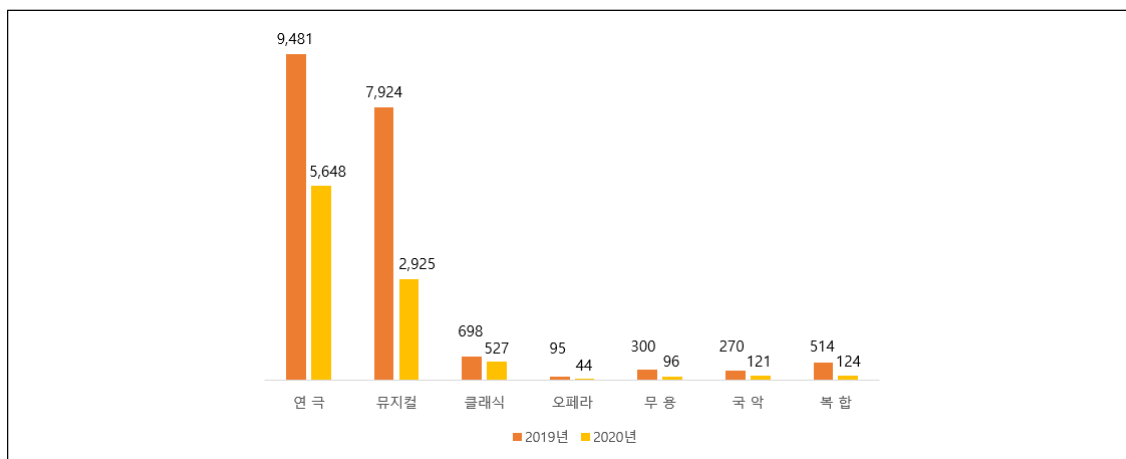
- 전년 동기 대비 상연 횟수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장르는 복합장르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연 횟수가 75.9%가 감소. 그다음 상연 횟수 감소율이 높은 장르로는 무용(△68%), 뮤지컬(△63.1%), 국악(△55.2%), 오페라(△53.7%), 연극(△40.4%), 클래식(△24.5%) 순으로 나타남

[공연 장르별 상연 횟수]

구분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2019년	7월	4,540	3,345	317	43	126	135	230
	8월	4,941	4,579	381	52	174	135	284
	9월	4,039	2,692	427	48	114	164	143
	10월	4,665	3,443	526	67	195	214	161
	11월	4,606	3,484	557	52	175	169	138
	12월	5,744	4,923	525	39	222	115	134
2020년	1월	3,845	3,353	196	2	33	103	55
	2월	3,071	1,731	186	10	34	62	9
	3월	1,425	731	23	1	1	3	1
	4월	1,465	655	36	1	11	1	4
	5월	2,640	950	107	22	28	15	15
	6월	2,441	857	178	5	33	47	24
	7월	2,799	1,306	221	21	55	32	49
	8월	2,849	1,619	306	23	41	89	75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2019.7~8 및 2020.7~8 공연 장르별 상연 횟수 비교]



#### 4. 공연 지역별 현황

##### 서울지역의 공연 감소 < 서울 외 지역의 공연 감소

- KOPIS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7~8월 서울지역의 공연 상연 횟수는 13,413회, 서울 외 지역은 5,869회임. 반면 코로나19의 영향권에 있는 2020년 7~8월의 경우 서울지역 공연 상연 횟수는 7,416회, 서울 외 지역은 2,081회로 두 지역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연 횟수가 절반(△49.3%)가량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음. 두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외 지역의 상연 횟수 감소율(△64.5%)이 서울지역의 감소율(△44.7%)보다 크게 나타남
- 하지만 서울과 서울외 지역의 공연 공급 비교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공연 상연 횟수 축소비율만을 근거로 코로나19가 서울 외 지역 공연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지역별 상연 횟수]

구분	2019년						202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서울지역	6,054	7,359	5,314	6,253	6,135	7,669	6,055	4,497	2,117	2,076	3,338	3,003	3,604	3,812
서울 외 지역(전국)	2,682	3,187	2,310	3,017	3,042	4,031	1,539	609	70	106	442	587	891	1,190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 5. 공연 수요(예매취소) 현황

##### 코로나19 대응단계 격상에 따라서 예매취소율도 증가

- 앞서 공연 공급의 관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면 이후 공연수요의 관점에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우선 공연수요의 변동은 KOPIS의 예매취소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음
- KOPIS의 예매취소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올 상반기 공연 예매는 급감된 반면 예매취소율은 급증함을 알 수 있음. 세부적으로 공연 예매의 취소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2019.7~12) 평균 취소율이 약 37%인데 반해 코로나19이 영향을 미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취소율은 약 75%로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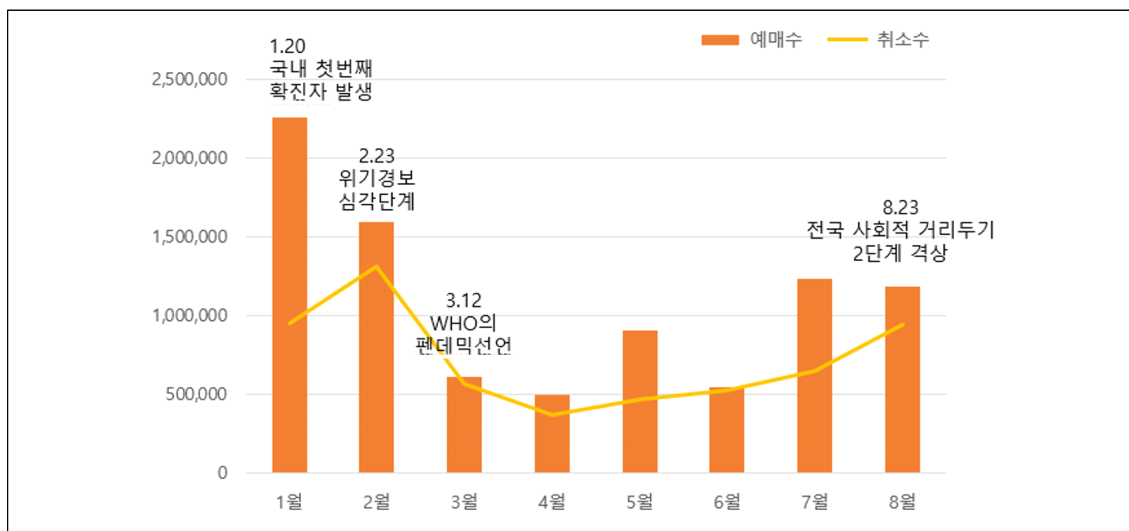
[2019~2020년 월별 공연 예매 및 취소율]

구분	2019						202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예매수	2,238,276	2,632,431	2,043,171	2,708,937	2,788,959	2,806,142	2,259,296	1,593,868	611,130	492,943	904,231	545,081	1,233,237	1,178,021
취소수	913,926	994,362	743,495	932,372	963,163	1,105,374	950,665	1,312,357	565,887	364,216	461,477	523,557	644,928	936,803
취소율	40.8%	37.8%	36.4%	34.4%	34.5%	39.4%	42.1%	82.3%	92.6%	73.9%	51%	96%	52.3%	79.5%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2019.7~8과 2020.7~8의 예매 취소현황을 보면 예매취소율은 39.3%에서 65.9%로 급증함을 볼 수 있음. 또한 1월부터 8월까지 예매 수 대비 취소 수의 월별 추세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응단계<sup>8)</sup>가 ‘위기경보 심각단계’ 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까지 점층적으로 격상되는 것에 따라 취소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보임

[2020년 월별 공연 예매 및 취소율 추세 및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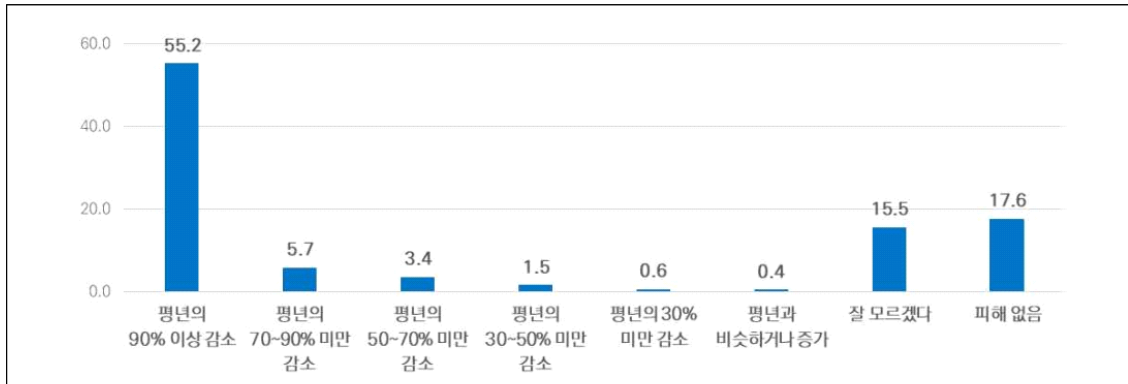


- 이러한 공연수요의 급감은 KOPIS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예술계의 ‘코로나19 피해조사<sup>9)</sup>’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됨. 관련 조사의 경우 공연예술분야 2,9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의 변화를 질문한 결과 ‘평년의 90% 이상 감소’ 했다는 응답이 55.2%였으며, ‘평년의 70~90% 미만 감소’ 했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남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5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관람객의 변화]



자료: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 이러한 공연 관람예매 취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론됨.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으로 인한 관람객의 자발적 취소와 공연취소(공연장 폐쇄 포함)에 따른 비자발적 취소로 구분할 수 있음
- 참고로 코로나19 이후 공연관람 참여 의향 조사<sup>10)</sup>에 따르면 공연관람을 피하는 이유로 67.3%가 '감염우려' 때문이라고 답한데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24.3%)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관람객의 자발적 취소 이유로 볼 수 있음
- 반면 비자발적 취소는 공연취소 및 공연장 임시폐쇄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 KOPIS 데이터상 해당 원인을 구분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 원인이 예매취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됨

## 6. 공연 매출액 현황

### 뮤지컬 장르를 제외한 모든 장르의 공연 매출액 급감

- KOPIS 데이터에서 공연 공급 및 수요 급감에 따라 전년 대비 매출액은 큰 폭으로 떨어짐을 볼 수 있음. 2020.8까지 공연계의 전체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임. 전년도인 2019.7~8의 매출액 약 435억 원과 비교해보면 2020.7~8의 매출액은 약 341억 원으로 94억 원 정도가 감소함.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19가 아직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1~2월의 실적이 상반기 전체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함

10) 코로나19 이후 공연관람 참여 의향 조사. 부산문화회관. 2020.5.27

[2019~2020년 월별 공연 매출액]

연도 기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매출액 증감(율)
	공연건수 (건)	매출액 (천원)	공연건수 (건)	매출액 (천원)	
1월	351	6,691,976	692	39,109,841	
2월	337	5,220,521	540	21,431,849	
3월	501	8,628,992	178	9,132,263	
4월	498	7,937,732	176	4,693,209	
5월	628	8,873,643	343	11,546,089	
6월	884	9,011,351	456	10,552,414	
7월	1,148	16,462,791	587	17,163,460	700,669
8월	1,242	27,080,976	802	16,993,551	△10,087,425
9월	1,276	23,384,193			
10월	1,511	30,109,905			
11월	1,578	34,711,901			
12월	1,569	54,953,119			
합계	11,523	233,067,100	3,774	130,622,676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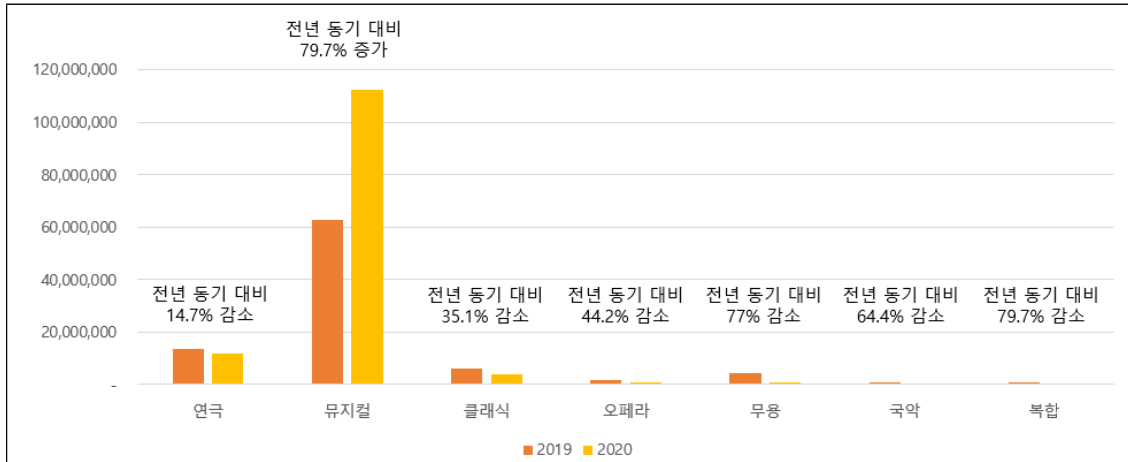
- KOPIS 데이터에 따르면 2019.1~8의 매출액은 약 899억 원, 2020.1~8의 매출액은 약 1,30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은 오히려 405억 정도 증가(45.1%)함
- 이러한 결과는 압도적인 뮤지컬의 매출액 증가(79.7%) 규모가 전체 매출액 변화 추이에 영향을 준 것임. 뮤지컬(outlier)을 제외할 경우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약 273억 원, 올해 약 180억 원으로 93억 정도가 감소(34.2%)함.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가장 높은 장르로는 복합(79.7%)장르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무용(77%), 국악(64.4%), 오페라(44.2%), 클래식(35.1%), 연극(14.7%)장르로 조사됨
- 다만 이 분석 역시 2019.6 이후부터 KOPIS 데이터의 전송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전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장르별 매출액 비교는 대략적인 추계 정도로 제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장르별 2019~2020년 매출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2019. 1~8	13,666,242	62,639,094	6,086,182	1,689,762	4,303,432	718,637	816,654
2020. 1~8	11,654,673	112,545,869	3,951,221	943,263	989,016	255,564	165,800
증감률	△14.7%	79.7%	△35.1%	△44.2%	△77%	△64.4%	△79.7%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 뮤지컬과 타 장르간 매출액 증감이 서로 다른 이유로는 높은 뮤지컬 관람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공연 횟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됨. 하지만 이외에도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에서도 민간 주도의 뮤지컬<sup>11)</sup>은 철저한 방역 속에 장기 공연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해외 내한공연 비중이 높은 클래식과 오페라의 경우 내한공연 취소가 증가한 영향이 존재

## 7. 공연 매출액 피해 추계

2월부터 8월까지 공연계 매출액 피해금액은 1,004억 원 ~ 1,400억 원

-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예매취소에 따른 피해 금액 추정을 위해 두 가지 방법 활용이 가능함. 첫째 전년(2019년) 평균 취소율을 활용해서 추정하는 방법과 둘째 전년(2019년) 평균 매출액을 활용하는 방법임
-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KOPIS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피해 금액을 산출추정하는 최소한의 추계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먼저 전년(2019년) 평균 취소율을 활용하는 방법은 우선 추정 피해 금액 산출을 위해 월별 시점에서 예매를 통한 매출액을 예매 일자 기준으로 파악.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받은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전년(2019년) 평균 예매 취소율인 37.6%를 적용하여 산출함. 2월부터 8월까지의 각 추정 피해금액을 산출 후 해당 추계를 통해 약 1,411억 원의 추정 피해액 산출함

11) 대표적인 사례로 뮤지컬 모차르트(MOZART)를 들 수 있음

[2020년 공연 평균취소율 및 추정 피해액]

단위: 백만원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매출액 <sup>12)</sup>	3,179	3,346	6,098	23,120	4,324	38,975	1,877	80,919
2019 평균 취소율(37.6%) 적용시 예상 매출액	48,599	18,946	17,746	29,293	18,141	50,621	34,944	218,290
추정 피해금액	45,420	15,600	11,648	6,173	13,817	11,646	36,821	141,125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 반면 전년(2019년) 평균 매출액을 활용하여 피해 금액을 추정했을 경우에는 2020.2~8의 공연예술분야의 총 피해금액은 약 1,400억 원으로 산출됨. 이 방법 역시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받은 올해 2~8월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2019-2020년 공연 예매취소 피해추정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A	2019년 평균매출액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B	2020년 최종매출액	21,043	9,132	4,693	11,546	10,552	17,163	16,993	76,149
A-B	2020년 피해추정액	11,957	23,868	28,307	21,454	22,448	15,837	16,007	125,891
B/A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비율	63.8%	27.7%	14.2%	35.0%	32.0%	52.0%	51.5%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 정리하자면 코로나19가 공연예술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올해 2020.2~8까지의 매출액 피해 금액은 약 1,004억 원~1,400억 원까지로 추정됨. 하지만 이는 외부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최소 추계이며, 우리나라 공연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sup>13)</sup>되어 있는 특징을 고려할 때 실제 총 피해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12) 해당 통계에서 매출액은 예매일자를 기준으로 공연관람이 이루어지기 전 순수 예매 매출액임. 공연예매활동이 대폭 감소한 시기는 매출액 또한 대폭 감소함

13) 문예연감의 통계추이 등을 참조

## 8. 공연장 운영 현황

### 공공보다 민간이, 대형보다 중소규모 공연장의 더 큰 어려움

- 공연 관람을 위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 중 아직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음<sup>14)</sup>에도 불구하고, 관객 집약형인 공연시설은 집단감염사례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서 인식되면서 국공립 공연장과 민간 공연장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객석 띄어앉기 및 방역을 실시 중인 국립극장과 세종문화회관]



- 참고로 KOPIS에 따르면 2020.9 기준 국내 공연시설 수는 총 1,347개소<sup>15)</sup>이며, 이 중 공공 공연시설은 512개소, 민간 공연시설은 835개소임

[공공·민간구별 공연시설 수]

구분		시설 수	비율
공공	❶ 국립	26개	1.9%
	❷ 공공(문예회관)	195개	14.5%
	❸ 공공(기타)	291개	21.6%
	소계	512개	38%
민간	❹ 민간(대학로)	159개	11.8%
	❺ 민간(대학로 외)	615개	45.7%
	❻ 기타(비공연장)	61개	4.5%
	소계	835개	62%

출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 지역별 분포는 서울의 공연시설이 554개로 41%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서울 외 지역은 791개로 59%의 점유율을 보임

14) 극단 배우, 스태프 등의 공연단체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발생함

15) KOPIS에는 온라인 예매 등의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등록 공연장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상시적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등록 공연장 여부에 따라 공연장 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지역별 공연시설 수]

지역	공연시설 수	공연시설 지역별 점유율	공연장 수	소공연장		중공연장		대공연장 1000석 이상
				100석 미만	100~ 300석	300~ 500석	500~ 1000석	
서울	554	41.2	717	197	318	90	64	48
부산	81	6	105	29	41	12	11	12
대구	66	4.9	90	22	31	18	5	14
인천	35	2.6	47	8	21	8	7	3
광주	34	2.5	50	12	20	7	7	4
대전	46	3.4	54	12	24	8	4	6
울산	21	1.6	28	6	11	5	4	2
세종	8	0.6	10	3	3	0	3	1
경기	159	11.7	228	35	69	53	42	29
강원	50	3.7	74	11	28	8	16	11
충북	32	2.4	40	8	12	7	7	6
충남	43	3.2	64	7	27	8	16	6
전북	48	3.6	70	16	23	11	11	9
전남	38	2.8	57	6	20	10	17	4
경북	48	3.6	69	9	12	17	22	9
경남	57	4.2	89	16	23	22	17	11
제주	26	1.9	30	6	10	6	5	3
해외	1	0.1	1	1	0	0	0	0

출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9.15 기준

- 국공립 공연장의 경우 정기적인 공연예술축제에 대관하는 곳이 많은데, 코로나 19 이후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공연 일정을 연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외 단체의 초청은 모두 취소하고 국내 단체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거리 두기 방침<sup>16)</sup>에 따라 객석을 축소하여 운영<sup>17)</sup>
- 특히 8월 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공공 공연시설은 대부분 임시휴관에 들어가는 등 상반기 내내 거의 휴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더해 하반기에 들어선 현재도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민간공연장 역시 방역조치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 공연장 임시휴관 등에 영향을 받아 공연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대학로의 공연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150여 민간 소극장들은 거리두기 공연의 실행 등으로 실제 관객이 급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16) 보도자료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에서는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로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5.13

17) 의정부음악극축제 사례

### 📁 관련 FGI 내용

“코로나 때문에 3월 부터의 공연은 모두 취소하고 5월 예정인 축제는 연기했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은 축제의 좌석과 객석을 30%만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관객은 줄었는데 방역 관련된 인력투입 등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많아요.”

- ○○지역문화재단 본부장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극장들 같은 경우에는 객석 거리두기 정부시책에 따라 관람객을 줄이거나 공연을 취소할 수 있는데, 민간극장이나 제작사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예산 대비 제작 매출이 안 나와서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 민간공연 제작사 대표 A

- KOPIS 데이터의 공공 공연장과 민간 공연장의 예매취소율을 비교해 보면, 2020.7~8 민간 공연장의 예매 취소율은 51.2%로 공공 공연장의 예매 취소율 37.4%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공공 공연장의 경우 문체부와 지자체 등의 코로나19 운영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 및 공연장 임시휴관 등을 통해 모수인 예매 수 자체가 크게 축소됨. 이에 취소율은 전년 동기와 유사하게 나타나게 됨을 유의해야 함
- 민간 공연장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예매 취소율도 높아져서 공공 공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더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공공 및 민간 공연장 비교]

구분		기간	2019년		2020년	
			예매 수	취소 수	예매수	취소 수
공공	❶ 국립	7월	165,160	63,379	59,515	15,556
		8월	309,908	149,139	69,536	18,666
	❷ 공공(문예회관)	7월	270,689	80,522	136,316	51,180
		8월	384,775	96,897	150,265	70,518
	❸ 공공(기타)	7월	77,913	53,092	7,959	2,720
		8월	118,231	55,964	17,057	5,966
계		1,326,676	498,993 (취소율 37.6%)	440,648	164,606 (취소율 37.4%)	
민간	❹ 민간(대학로)	7월	314,539	131,482	244,612	101,128
		8월	431,490	158,463	295,596	159,150
	❺ 민간(대학로 외)	7월	298,452	123,794	217,560	106,774
		8월	459,428	168,521	302,660	177,566
	❻ 기타(비공연장)	7월	5,382	4,088	5,747	2,148
		8월	15,067	4,254	11,389	5,120
계		1,524,358	590,602 (취소율 38.7%)	1,077,564	551,886 (취소율 51.2%)	



- 관련하여 공연계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 대관이 취소되거나 임시 휴관되는 경우, 공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공연단체가 지거나 공연장 측이 분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통지침이 필요<sup>18)</sup>함을 피력. 운영에 기준이 되는 공통지침이 부재하며, 지자체별 공공 공연장에서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음

#### 📁 관련 FGI 내용

“저희 7개 협회가 모여서 공개 질의를 보냈고 회신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대구에 확산되면서 국공립은 다 공연 시설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게 공문처럼 있었는데 민간은 그런 게 없었어요. 문체부나 서울시에서 특별한 운용지침이 없이 공연장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면이 있죠.”

- 한국소극장협회 임원

“저희는 무대 세트를 극장에 내리고 있는 와중에 취소통보를 받았어요. 극장에서는 계약내용상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공연 취소로 인한 제작사 보상 등은 극장마다 달라요. 그게 지자체장이나 극장장 결정에 따라 달라지고요.”

- 민간공연 제작사 대표 B

## 9. 공연 예술인(근로자)의 피해 현황

### 고용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더욱 가중되는 경제적 피해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영향은 공연 수요라는 관객을 제외하면 결국 공연 예술인 및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일 수 있음. 공연 예술인과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콘텐츠 공급 축소 혹은 중단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어려움<sup>19)</sup>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또한 창작 저하로 연계되어 일련의 악순환 구조를 야기할 수 있음
- 참고로 2019년 공연예술실태조사<sup>20)</sup>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연시설 종사자 수는 12,206명, 공연단체 종사자 수는 51,281명으로 조사됨.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공연예술을 제작 실연하는 예술인 개개인들은 결국 자신의 본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공연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4.5%<sup>21)</sup>임을 고려할 때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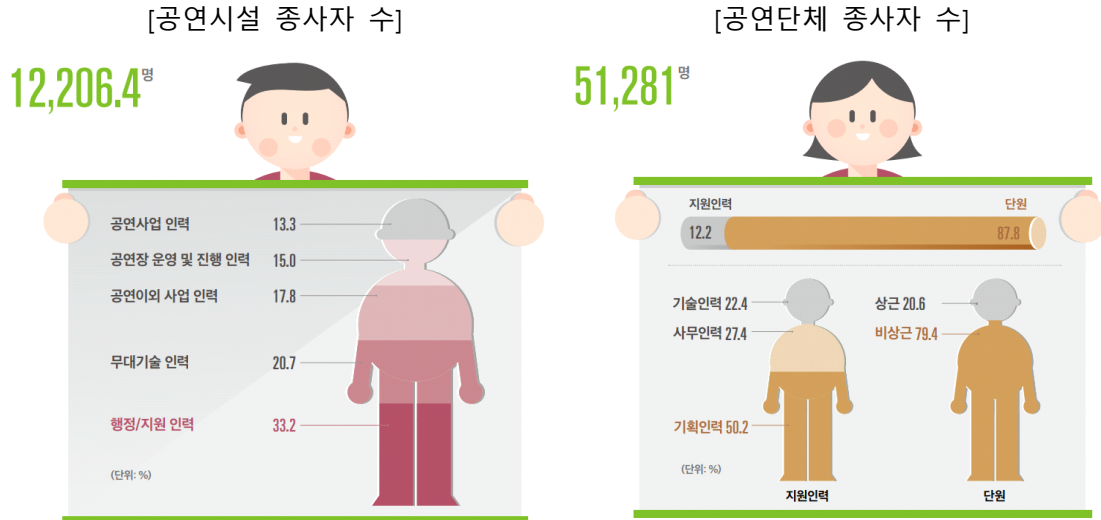
18) 코로나19는 높은 확산율에 비해 치명율이 낮은 특성이 있어 공연분야를 포함하여 일상적 행위를 재개함에 있어 명확한 정책적 결정이 어려운 성격이 있음

19) 언론기사 ‘예술인들 3개월간 수입 0원. 연대의 삶, 공동의 삶이 중요’. 경향신문. 2020.4.25

20)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9.12

21)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9.12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기본적인 생활이 당장 단절되고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생계 위협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



- 통계청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통해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피해를 추정할 수 있음. 코로나19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첫 번째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2~4월 기간의 고용피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검토. 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 3월은 7.3% 감소, 4월은 10.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규직과 같은 상용근로자 보다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가 예술분야 종사자 중 고용취약계층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피해<sup>22)</sup>]

(단위: 명)

	2019년 2월	2020년 2월	고용 감소율	2019년 3월	2020년 3월	고용 감소율	2019년 4월	2020년 4월	고용 감소율	전년대비 2~4월 평균감소율
전체종사자	89,409	86,568	-3.2%	92,411	85,628	-7.3%	93,877	84,264	-10.2%	-6.9%
상용근로자	68,859	68,095	-1.1%	70,258	67,284	-4.2%	70,140	66,810	-4.7%	-3.4%
임시근로자	15,654	15,180	-3.0%	17,166	15,832	-7.8%	18,649	15,503	-16.9%	-9.2%
기타근로자	4,895	3,293	-32.7%	4,987	2,511	-49.6%	5,087	1,952	-61.6%	-48.0%

자료: 통계청 2019~2020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별 산업/규모별 고용 데이터 가공

22) 2025 서울예술인플랜 수립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서울연구원. 2020.6

- 앞에서 도출된 고용감소율을 활용하면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의 근로자 고용피해를 추계할 수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조사된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연간 인건비에 고용감소율을 적용하여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금액을 산출함. 산출된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금액을 다시 연 단위(12개월)로 나눈 후 올해 2~5월까지 4개월을 곱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피해 추계금액이 산출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근로자 고용피해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연간 총지출	인건비 비율	연간 인건비	비정규직 비율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피해 추정 (2~5월)
공연시설	1,209,580	34.1%	412,467	27.7%	28,460	9,486
공연단체	1,104,850	42.7%	471,771	77.2%	32,552	10,850
계	2,314,430		884,238		61,012	20,336

자료: 통계청 2019~2020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별 산업/규모별 고용 데이터 가공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2~5월의 고용피해액 규모는 203억 원, 월 평균 51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단순 산술로 올 연말까지 기간을 산정하면 561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을 추계할 수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될 수록 공연예술 근로자의 고용위험(고용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공연예술 근로자의 고용 피해 금액은 이 추계금액을 훨씬 웃돌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예술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 중.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황폐화에 대응하는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공연시장 위축기간 동안 필수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sup>23)</sup>과 프리랜서 예술인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정책 등이 실시 중에 있음

23)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20.7

### 📁 관련 FGI 내용

“정부에서 현장인력들 퇴직시키지 말라고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당을 주는 휴직 지원금 성격이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론 좋은 지원이 예요. 정말 도움도 되고.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른 성격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너무 단기인력 중심이고, 대상자도 신규 인력이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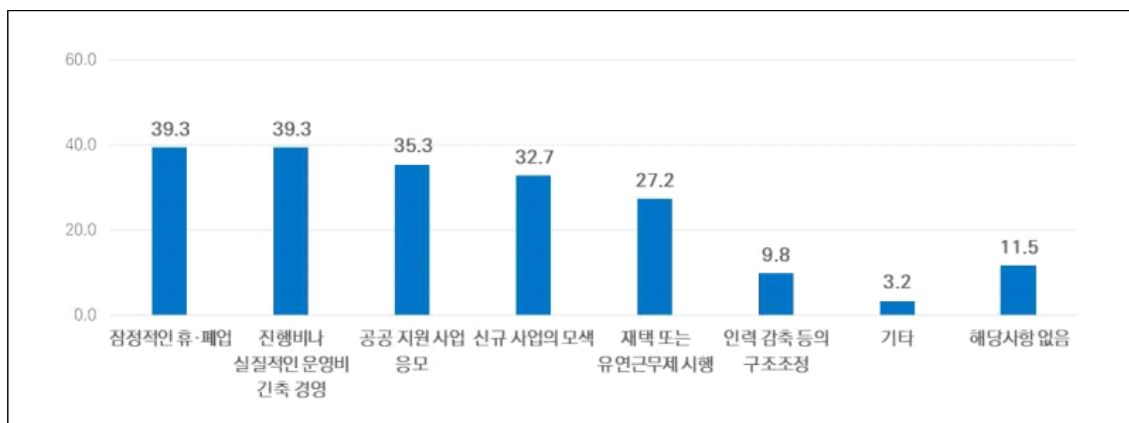
- 민간 공연제작사 대표 D

“앞서 일자리 문제는 공연기획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연기획은 굉장히 노동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용 지원을 받는 인력들은 대부분 다 기획행정 인력들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분리된 정책, 명확히 시장과 업계를 이해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작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 민간 공연제작사 대표 A

- 관련하여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sup>24)</sup>에 따르면 공연예술분야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공연예술분야 기관<sup>25)</sup>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안(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잠정적인 휴·폐업’ (39.3%)과 ‘진행비나 실질적인 운영비 건축 경영’ (39.3%) 등에 이어 ‘공공 지원 사업 공모’ (35.3%), ‘신규사업의 모색’ (32.7%), ‘재택 또는 유연근무제 시행’ (27.2%)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안]



24)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5

25) 조사대상 수는 2,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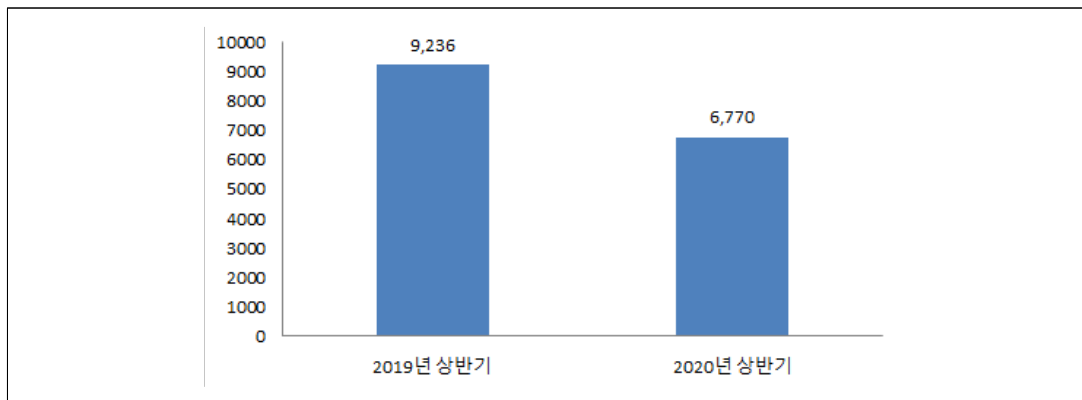
## 10. 공연예술과 코로나19관련 언론매체의 보도 현황

### 위축된 공연계, 감소한 언론 보도

- 위축된 공연계의 현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됨. 공연예술에 대한 2020년 상반기(1~6월) 언론 보도량<sup>26)</sup>은 6,7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236건에 비해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공연예술에 대한 보도 중 지역 분류 기사는 전년 대비 65.6% 감소했으며, 문화 분류 기사는 32.1% 감소. 이 같은 언론 보도량 감소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다수 공연이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공연 관련 보도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공연예술관련 월별 언론기사 건수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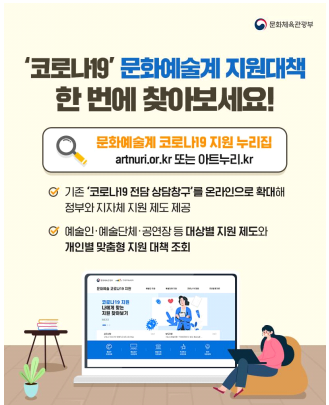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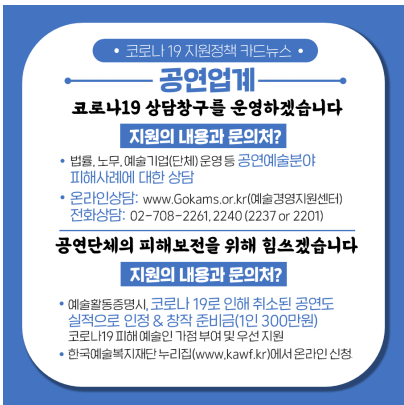
- 1월의 1,063건 공연예술 관련 보도 건수는 코로나 감염증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933건으로 감소. 이후 공연예술 관련 보도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며 3월 1,089건, 4월 1,092건, 5월 1,206건, 6월 1,197건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이 같은 보도 건수 증가는 공연시설 및 공연 기획·제작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언택트 공연’을 속속 선보인 데 따른 언론의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공연 예술과 코로나의 단어가 포함된 전체 언론 보도의 경우 총 1,111건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언론 주목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사회적 거리’로 나타남. ‘사회적 거리’는 ‘공연 예술과 코로나’의 연관어 관계망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의 우려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공연 예술계에 당면한 최대 화두임을 보여주고 있음

26) 분석 대상 언론은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54개 언론사(5개 방송사, 11개 중앙 일간지, 28개 지역종합지, 8개 경제지와 2개 전문지)를 대상으로 함(출처 : 빅카인즈 (www.bigkinds.or.kr))

## 11. 정책과 지원사업 현황

### 추경을 통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 예술정책과 지원사업 역시 코로나19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메르스 때 긴급구호를 했던 경험을 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나서 서둘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각 지역문화재단 또한 정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편성함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안내 <sup>27)</sup> ]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 운영 <sup>28)</sup> ]
 <p>문화체육관광부</p> <p><b>‘코로나19’ 문화예술계 지원대책 한 번에 찾아보세요!</b></p> <p>문화예술계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코로나19 전담 상담창구’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 제공</li> <li>○ 예술인·예술단체·공연장 등 대상별 지원 제도와 개인별 맞춤형 지원 대책 조화</li> </ul>	 <p>• 코로나 19 지원정책 카드뉴스 •</p> <p><b>공연업계</b></p> <p><b>코로나19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b></p> <p><b>지원의 내용과 문의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노무, 예술기업(단체)운영 등 공연예술분야 피해사건에 대한 상담</li> <li>• 온라인상담: www.Gokams.or.kr(예술경영지원센터)</li> <li>• 전화상담: 02-708-2261, 2240(2237 or 2201)</li> </ul> <p><b>공연단체의 피해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b></p> <p><b>지원의 내용과 문의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중명시,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공연도 실적으로 인정 &amp; 창작 준비금(1인 300만원)</li> <li>•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부여 및 우선 지원</li> <li>• 한국예술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온라인 신청</li> </ul>

- 또한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 되면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를 대비, 긴급 복지예산을 추려냈고 방역 관련 예산 등 향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축제나 지원기관의 사업을 조정해서 코로나 대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

#### 📁 관련 FGI 내용

“메르스 사태 때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이 문제발생과 지원시기가 다르다보니 정말 지원이 필요한 예술단체들은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의 지원사업 기조는 정말 어려운 예술가와 단체들에게 시의성 있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 □□지역문화재단 본부장

27)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artnuri.or.kr

28) 예술경영지원센터 gokams.or.kr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sup>29)</sup>한다고 밝힘.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4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일자리 지원의 경우 현장 인력과 온라인·비대면 환경 대응 인력을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 활동 제공이 중심
-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 개를 지원(319억원)할 예정.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등 공연 분야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분야 3차 추경 증액사업(국고)]

(단위: 억 원)

사업명	예산 (순증)	주관처	사업 내용
①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1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 보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발표 및 보급 채널 다각화 지원
②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 및 향유 비대면 방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화 기반 마련
③지역문학관 소장유물 체계화	14	(사)한국문학관협회	지역 공립문학관 87개관 소장 도서자료 서지정보 목록화 및 비도서자료 내역 파악, 영상촬영 등을 통한 DB구축
④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9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 중단 위기 예술인들에게 1인 300만원 일시금 지급
⑤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288	한국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무용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장르별 협·단체를 통해 공연예술단체에 공연실연인력, 공연지원인력 일자리 지원
⑥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31	(사)한국소극장협회	하반기 공연수요 증가 대비, 중·소규모(500석 미만) 공연장 대상 방역안전 인력 지원
⑦공연할인쿠폰	29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 진정 후, 공연예술 관람 할인권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시장의 공연수요 진작
⑧공공미술프로젝트	759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⑨미술 전시 할인쿠폰	52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 진정 후, 전시 관람 할인권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전시 수요 진작
⑩문화예술 교육 자원 조사	115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역 문화자원(인력, 프로그램, 고유자원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분석·DB화 및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계	1,569		

2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129](http://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129)

- 하지만 추경을 통한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이와 함께 가장 최근 발표된 지원정책<sup>30)</sup>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비대면 예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크게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 공연 영상화 종합 제작 공간조성, barrier free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 대국민 대상 예술치유 꾸러미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문체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예술지원' 방안 발표..온라인...**  
2020.09.09 | 경향신문 | 다음뉴스

[경향신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예술...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올해 17개 광역문화재단과 협력해 전국...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예술활동에 148억원 지원** 2020.08.27 | 파이낸셜뉴스 | 다음뉴스

관광부 청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148억9000만원의 예산을...예술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 **코로나19 비대면 예술활동, 2700여명에게 148억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15억 추가 투입**  
2020.04.28 | 뉴스1 | 다음뉴스

지원금을 배부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와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코로나19 '직격탄' 문화·예술 분야, 1569억원 투입** 2020.07.08 | 노컷뉴스 | 다음뉴스

오영우 1차관,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과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나서**  
2020.08.26 | 영등포신문

공개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시민 모두의 일상에 예술이 단절되지..."

30) 보도자료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9.9.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275](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275)



### III 코로나19, 공연예술분야 이슈와 전망

#### 1.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 공연예술의 변화

-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코로나19는 문화예술의 창작, 제작, 유통, 소비, 향유 등 예술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sup>31)</sup>.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은 문화예술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로 이어져 예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킴. 더 나가 팬데믹(pandemic)까지 선언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적 변화는 언택트(untact)라는 뉴노멀(new normal)의 트렌드를 나타나게 함
- 언택트는 비대면이라는 뜻으로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해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누리는 의미로 현재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 각종 활동과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포괄하는 의미로 통용됨. 반면 뉴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란 뜻으로 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 경제의 특징들을 통칭. 경제학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

[코로나19 전후 소비형태의 변화<sup>32)</sup>]

	SHOPPING	FOOD	ENTERTAINMENT	FINANCE	HEALTH & BEAUTY	WORK
<b>Before Covid19</b>	오프라인 구매 선호 대형마트, 백화점 로컬 매장 등을 이용	외식 비중 높음 식당, 매장을 직접 방문-이용	오프라인에서 접촉 극장에서 영화 관람 공연, 전시 관람	은행 창구 활용 창구를 직접 방문해 은행 업무를 처리	오프라인 선호 매장에서 화장품 구매 피트니스클럽 이용	대면 중심의 업무 대면 미팅 진행 대면 면접 진행
<b>After Covid19</b>	온라인 구매 증가 소셜커머스, 종합 쇼핑몰 브랜드몰 이용률 증가	홈룩 또는 배달 이용 일키트 주문 증가 배달 음식 주문 증가	디지털 콘텐츠 소비 동영상 라이브 공연 AR/VR 전시회 OTT 소비 증가	비대면 서비스 강화 비대면 계좌 개설, 비대면 소비 할인 카드 출시	집에서 구매·관리 온라인 구매 증가 홈트레이닝 증가	비대면 업무 활성화 재택 근무 화상 회의·채용

- 언택트라는 뉴노멀의 트렌드에서 보듯이,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과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팬데믹이 종식되어도,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sup>33)</sup>하고 있음. 뉴노멀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 분야의 침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음. 특히 창작자와 관람객의 직접적 대면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예술, 그중에서도 공연예술시장은 경기침체와 함께 커다란 어려움과 변화를 동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31)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7.9

32) 디지털 시대, 일상이 된 UNTACT 트렌드, 메조미디어. 2020.4.23

33)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한국경제. 2020.4.13

-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소비가 둔화되고, 필수소비가 아닌 여가소비는 축소되는 경향이 존재. 더욱이 호흡기 등으로 전염되는 특성을 가진 전염병 확산의 국면에서 공연 관람 행위는 가장 우선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sup>34)</sup>. 따라서 공연예술의 현장관람 수요 감소는 평균적인 내수침체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됨

#### 📁 관련 FGI 내용

“부정적인 전망이죠. 코로나19가 잘 끝난다 해도 관객들이 많이 올까 싶어요. 다시 공연의 소중함을 알고 공연을 보러온다, 이건 아닌 듯 합니다. 관객들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에 적응했을거라 봐요. 또 굳이 공연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 민간 공연제작사 대표 E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팬덤이 있는 콘텐츠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인터내셔널하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정말 중소기업이 그런 작품들이나 아티스트들은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양극화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확 심해질 것 같아.”

- 민간 공연제작사 대표 B

- 이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공연예술의 공급과 수요형태임. 관객은 현장보다 온라인으로 예술을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며, 관객과의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대중문화 공연들 역시 온라인 무대 활동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이에 문화예술 향유 행위 또한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로의 접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연예술계 창작·유통·매개 부문의 각 주체가 겪게 될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2. 언택트untact에서 온택트ontact로

- 기존 오프라인 예술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의 온택트 공연은 시간적·공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통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관객기반을 형성하여 새로운 수익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온택트 공연은 5G와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 및 빅데이터 & AI로 실현되는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와 만나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34) 코로나19 총격: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20.5.8

[국공립 예술단체의 온택트 사례]



- 이러한 공연의 영상화 노력은 처음 하는 시도는 아니며 코로나19 이전부터 국내외 공연예술계에서는 탐색적으로 추진하였음. 2006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시도한 ‘Met Opera in HD’<sup>35)</sup>, 2009년 영국 국립극장이 선보인 ‘NT Live’<sup>36)</sup> 등의 공연 영상화 시도에 대해 관객의 반응은 호의적임. 특히 지난 4월에 유튜브 채널 ‘Show Must Go On’에서 서비스 된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 영상은 48시간 동안 전 세계 1천만여 명이 관람<sup>36)</sup>
- 국내 공연계 역시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음. 예술의 전당의 ‘썩온스크린(SAC on Screen)’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연횟수와 관객수의 증가를 보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네이버TV가 연계하여 공연실황중계를 한정적으로나마 진행하였으며, 2015년~2018년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CT(문화기술) R&D 사업으로 공연영상화 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이 추진되기도 함



- 공연제작과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

35)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국립극장에서는 NT Live 작품 4편을 4월 한 달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주일씩 무료로 공개. [www.youtube.com/user/ntdiscovertheatre](http://www.youtube.com/user/ntdiscovertheatre)

36) 유튜브에 등장한 ‘오페라의 유령’에 천만 관객 감동. 연합뉴스. 2020.4.20

연예술의 미학적 방법론과 제작방식의 적용이 필수적일 수 있음. 이에 최근 공연 영상화에 대한 관점과 대응체계 및 준비요소 등에 대해서는 SBS 팟캐스트 프로그램 ‘커튼콜’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기획한 ‘포스트 코로나: 공연예술 영상화의 과제와 나아갈 길’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과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음

- 온택트 공연, 즉 공연 영상화는 수요의 관점에서는 관객에게 시장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예술의 가치 하락과 예술 소비에 있어 제한적 환경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존재함. 공급관점에서 볼 때, 공연 영상화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정적인 의견은 영상 기술과 관련이 많음. 영상 송출에 집중되어 공연예술의 현장감을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조명이나 음질, 화면의 편집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여건이라는 의견<sup>37)</sup>이 제기

### 3. 공연 영상화에 따른 예술현장의 혼란

- 그동안 국내에서 선보인 대다수 공연 영상화, 즉 언택트 공연은 온라인 소비를 목적으로 전문 제작되기보다 아카이브용으로 제작되거나, 공연의 단순 중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공연 영상화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미흡한 상태로 공연 영상화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공연 영상화를 통한 언택트 공연이 국내외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나 국내 대부분의 공연자, 제작자, 공연단체는 이에 필요한 준비와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또한 이러한 혼란은 소비자와 매개자라 할 수 있는 공연장과 플랫폼 등 공연제작-유통-소비에 이르는 공연생태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작된 언택트 공연 콘텐츠들의 질적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일정한 완성도나 흥행성을 갖춘 국공립예술단체나 대형 제작사에 한정하여 네이버 등의 주요 플랫폼들과 연계된 영상화를 추진 중이지만, 대다수 중소규모의 민간제작사들은 비용과 역량, 유통방법 등의 문제로 인해 완성도 높은 공연 영상화에 대한 시도도 쉽지 않은 상황임
- 공연계 종사자들의 경우 현장 공연관람이 제한받는 언택트 팬데믹에서 급조되는 공연 영상화는 결국 일시적인 대체재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음. 공연 영상화를 기존공연의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장르의 출현으로 인식해야 하고 공연시장의 확장이 아닌 대체재로서 공연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3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공연 생태계 조건’. 예술경영웹진 vol.453. 2020.9.10

- 장기적으로 실제 공연과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의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네이버나 CJ 등 거대 자본에 의한 공연시장의 잠식이 걱정된다는 현장의 의견도 존재. 결국 메이저 공연장들만 살아남고 이도 저도 아닌 지역의 공연장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공연 영상화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공연계 종사자들의 시각은 큰 차이가 있음

#### 📁 관련 FGI 내용

“뉴노멀 시대의 공연장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공연장이, 극장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공연은 콘텐츠로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도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공연장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결국 메이저 공연장들만 살아남고 중소 민간 공연장들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 한국소극장협회 임원

## 4. 온택트ontact, 대안으로서의 공연 영상화를 위한 과제

### 4-1. 공연 영상화의 유료화 및 서비스 플랫폼 문제

- 미술관과 박물관의 가상현실(VR)전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무관중 공연 생중계 등 새로운 시스템 출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공연 영상화를 통한 비대면 관람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존재. 이는 바로 유료화의 문제로 공연예술 생존을 위한 수익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임
- 적극적인 예술 관객은 유료 공연영상에 적정 가격으로 소비<sup>38)</sup>할 수 있겠지만 그 수요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sup>39)</sup>. 영화와 같이 매체상연을 하는 상업예술분야는 이미 극장과 IPTV 등의 매체별로 유료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제 시작 단계인 기초예술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시장 형성이 어려움
- 공연영상 유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유료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의 문제임. 현재 가장 큰 영상서비스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영상 게시의 편의성은 높으나,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제공은 무료이고 대부분의 수익구조는 구독자 수와 조회 수에 기반하여 책정되는 광고수익으로 티켓팅에 필요한 과금

38) 일회 스트리밍 사용료 지불, 선착순 한정판매 혹은 평생 소장 등의 소비 방법 등이 존재

39)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공연 영상, 현황과 전망 대담 中 ‘공연 영상 시장은 공연 시장이 먼저 형성된 뒤에 그 관객의 일부가 파생되는 양상이 주요하기 때문에 공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 매거진. 2020.5.31

편의성이 미흡함

- 그 외에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글로벌 OTT<sup>40)</sup> 플랫폼이 있으나, OTT플랫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대중적 흥미도와 영상으로서의 완성도가 요구됨. 예를 들어 9월 부터 넷플릭스에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빌리 엘리어트’, 뉴욕 시티 발레단 수석무용수 타일러 팩의 ‘발레 나우’와 같이 대중적 인지도와 예술적 완성도가 탄탄한 작품만 서비스되고 있음
- 이는 반대로 상업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순수예술이나 신규 공연작품의 진입장벽을 의미하며, OTT 플랫폼이 티켓판매 금액을 배분하는 과금체계가 아닌 구조에 기인함
- 글로벌 플랫폼을 제외하면 현재 공연영상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IPTV 3사, WAVVE, TVING 등의 플랫폼이 존재. 최근 네이버의 V-Live에서 뮤지컬 ‘모차르트’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기로 했으며 가격책정<sup>41)</sup>도 처음이라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음

[네이버TV의 공연예술 라이브 지원]	[모차르트 온라인 상연 기사]
<p>LIVE</p> <p>온라인 공연 활성화를 위해 후원한 사용자에게 라이브 감상 제공</p> 	<p><b>“모차르트~ 언택트!” 뮤지컬 온라인 상연</b> KBS 연예   2020.09.02.   네이버뉴스   <a href="#">🔗</a></p> <p>뮤지컬 &lt;모차르트!&gt;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유료’ 온라인 공연 시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늘 오후, 데스24 티켓을 통해 뮤지컬 &lt;모차르트!&gt; 10주년 기념공연의 실황영상...</p> <p><b>“네이버에서 뮤지컬 연극 후원하고 라이브로 감상하세요”</b> 연합뉴스   2020.09.07.   네이버뉴스   <a href="#">🔗</a></p> <p>‘브이라이브’에서는 뮤지컬 ‘모차르트!’의 온라인 감상 티켓 유료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공연예술 합성민 리더는 “뮤지컬 오페라뿐 아니라 국악·무용 등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의 온라인 활성화에도 도움이...”</p>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TV는 기본적으로 유료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에 필요한 과금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며 현재는 후원금을 결제<sup>42)</sup>한 사용자에게 라이브 감상을 제공. 무엇보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지 않은 공연영상을 위해 자체적인 과금시스템을 구축할지 확실하지 않음. 더욱이 네이버TV의 라이브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팔로워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도 있어 작은 공연제작사로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40) OTT(Over The Top Service)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41) 네이버기준 1500코인, 시장환산가 평균 약 35,000원

42) FGI에서는 공연 영상 관람에 따른 시장가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초기부터 후원의 형태로 시작한다면 향후에도 언택트 공연 관람의 유료화와 가격체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4-2. 공연 영상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 한계

- 공연예술계의 재정적인 영세성은 기술융합형 콘텐츠를 도입하기에 큰 장벽으로 작용. 공연예술계에서 가장 활발한 공연예술의 콘텐츠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은 뮤지컬<sup>43)</sup> 장르이며 이는 그 대중성에 기반한 투자여건이 다른 장르보다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 뮤지컬계는 CJ ENM이 제작에 참여하는 등 산업화의 정도가 그 어떤 영역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
- 반면 뮤지컬계를 제외한 연극, 클래식, 전통공연, 무용 등 순수 예술 분야에서는 해당 장르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팬덤 형성이 부족한 상태로, 이들 장르를 기획, 제작하는 업체는 큰 투자가 필요한 기술융합형 콘텐츠를 자체 노력으로 진행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 관련 FGI 내용

“예술의 전당에서 네이버tv와 진행한 온라인 클래식 공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은 기록용 카메라도 있고 자체예산 투입도 가능하니 그걸 할 수 있는거죠. 민간에서는 비용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또 영상 전문인력이나 전문 스태프들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 엄두가 안나는 거죠. 예산 때문에. 영상화는.”

- 민간 공연제작사 대표 F

-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공연예술의 온라인화가 대부분 국공립 기관 위주로 진행되는 현실은 온라인화가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자리 잡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특히 공연의 온라인화에 대한 명확한 수익 모델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연예술의 온라인 제작은 쉽지 않을 수 있음

#### 4-3. 공연 영상화 저작권 문제

-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복수의 창작자들이 힘을 합하여 제작한 경우 이 콘텐츠는 ‘결합저작물’로서 제작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작 주체에게 모든 저작권이 귀속. 단, 이 경우에도 참여한 모든 배우와 창작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마땅히 필요한 저작권 양도나 위임 과정을 거치게 됨. 반면 공연영상의 경우 이러한 제작자, 실연자, 창작자로 세분화되는 지적재산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미흡하고, 문제의식조차 희박한 경우가 많음

43) 네이버로 녹화중계된 뮤지컬 ‘마리 퀴리’는 21만뷰의 성과를 거두는 등 뮤지컬의 콘텐츠화에 대한 수요를 확인

- 무대공연의 경우 현장성과 휘발성으로 후속적인 콘텐츠로 고정화되지 않았던 터라 이러한 저작권<sup>44)</sup>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과 대처의 필요성이 약했으나, 공연영상의 경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고, 또한 향후에라도 발생가능한 충돌들이 다양하고, 이러한 충돌이 야기시키는 문제의 심각성이 심대하므로 공연영상 제작에 앞서 충분한 고려와 대응조치가 필수적

#### 📁 관련 FGI 내용

“소극장협회 주관으로 대학로 거리에서 6월에 야외공연을 진행했었어요. 공연을 위해 펜스도 치고 유튜브로 생중계도 진행하고요. 스태프들과 공연진들이 으싸으싸하면서 했는데, 유튜브 공개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행하게 되었어요. 야외공연 7개 팀 중에서 4팀이 작곡을 안 한 음악을 틀었는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 OO연극협회 임원 C

#### 4-4. 공연 영상화 전문인력

- 현재 공연계와 영상제작업계의 전문인력들은 충분하게 양성되어 있고, 오히려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반면 공연영상제작 부문의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공연영상 제작은 기존의 개별 공연과 개별 영상제작 부문과의 차이를 보이는 점이 존재함. 보다 구체적으로 공연제작, 공연영상제작, 공연장, 플랫폼의 차원의 전문성에서 그 차이가 발생
-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공연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집중적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 필요한 인력들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4-5. 공연예술 현장의 피해와 갈등

- 공연예술의 온라인화에 대한 공연예술계의 반발도 적잖은 걸림돌로 예상할 수 있음. 공연예술의 온라인화에 대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공연예술 콘텐츠가 과연 오프라인 공연의 보완재 역할로 공연예술 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대체재로 작용할지 여부임. 온라인 공연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게 존재

44) 저작권 이슈중에서도 현재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문제는 출연배우 또는 실연자의 초상권과 음성권 등 프라이버시권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공연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될 경우 발생할 공연이 열리지 않는 공연시설과 장기 공연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의 스태프의 임금 등 피해에 대한 보상책은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만일 네이버, CJ 등 거대 자본에 의한 온라인콘텐츠가 공연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 공연 현장으로서 공연장이라는 공간의 역할이 모호해 질 수 있음. 결국 메이저 공연장들만 살아남고 중소 공연장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연계의 합의와 안전장치가 필요

#### 📁 관련 FGI 내용

“온라인 영상화가 향후 공연예술의 대안처럼 인식되는 것이 우려가 되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시스템 영역이 정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온라인 영상화는 공연의 확장방법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 △△지역재단 본부장

## 5. 정책과 지원사업

- 코로나 19로 인한 공연예술계 피해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공급(예술가, 창작)과 수요(관객, 향유)로 구분할 수 있음. 수요의 경우 국민의 문화예술 접근·향유 환경을 유지<sup>45)</su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격차(culture divide) 해소를 위한 지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공급의 경우 예술가의 기초생활 지원<sup>46)</sup>을 통한 생태계 유지 및 새로운 환경에서의 창작활동 지원<sup>47)</sup>이 정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예술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 지원형태가 필요
-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사업인 창작준비금제도에 지원신청하고 있으나,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만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sup>48)</sup>할 것으로 전망

45) 보도자료 ‘코로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9.9

46) 예술가 생계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경우 상반기 232억 원의 예산으로 총 7,725명의 예술가를 지원하였으며 현장 수요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47) 다양한 실험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성장 유도 문화체육관광부. 2020.9.9

48) 창작준비금 예산을 포함, 정부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2020년 대비 5.4% 증액된 6조 8,273억 원으로 편성

- 참고로 예술인 복지지원은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예술정책 중의 하나로 특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체육, 과학 등 타 분야의 사례처럼 예술인공제회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 전달·실행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 역시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성 중에 있음

#### 📁 관련 FGI 내용

“긴급 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이 위독하면 빨리 호흡기를 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구조적으로 실제 지원집행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에게 일정 부분 긴급 지원금 편성·운영 권한을 주면 어떨까 생각해요. 물론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게 재난과 같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요.”

- ○○지역문화재단 본부장

“예술창작이 그 예술가의 생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기초적인 안정이 있어야 예술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작준비금과 같은 현금지원이 예술인들에게는 가장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술인 지원에 있어서 다른 지원사업을 어느정도 통합해서 현금이전 지원형태로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예술인복지재단 본부장

-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이 주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하반기에 공공 지원이 몰릴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각종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공극장을 운영하는 문화기관과 지원기관들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보다는 복지지원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의 축소 등 상당한 긴축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공연예술계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연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다층적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 이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더 나아가 지원정책을 통한 위기 돌파(break through the crisis)의 전형을 만들어 사회적 자산<sup>49)</sup>으로 활용되길 기대

49) 언론기사 ‘서로 응원하는 박수, 극장 넘어 삶의 무대에 이어지길’ 중 “우리들의 무대에서 큰 울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뜨거운 박수가 극장을 넘어 모든 삶의 무대에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조선일보. 2020.8.11

# 2020 공연시장 이슈리포트

코로나19와 공연예술분야 현황 및 전망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총괄 홍사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본부장  
김현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팀장  
김현정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대리  
이다운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주임

연구진 이음스토리 아젠다 C & M

총괄 황용구 이음스토리 대표

책임연구원 김관호 올댓플래닝 대표

연구원 양효석 이음스토리 아젠다 C & M 연구위원

연구원 이석호 이음스토리 아젠다 C & M 수석연구원

연구원 이원주 이음스토리 아젠다 C & M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재승 이음스토리 아젠다 C & M 연구원



[www.gokams.or.kr](http://www.gokams.or.kr)

